



늘 군민 가까이에서 함께 호흡하며 사회의 그늘진 곳을 찾아 군민이 골고루 행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온 박우정 군수 기자회견

“지속가능 발전기반 확충”

민선 6기 전반기 고창군청 평가 박우정 군수 기자회견

늘 군민 가까이에서 함께 호흡하며 사회의 그늘진 곳을 찾아 군민이 골고루 행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온 박우정 군수가 민선 6기 전반기를 돌아보며 기자회견을 통해 소회를 밝혔다.

27일 군청 상황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박 군수는 민선 6기 전반기 2년은 군의 뚜렷한 발전 목표를 정하고 장기적 안목으로 미래 고창발전의 기틀을 다지며 대한민국 최고의 자연생태도시, 찬란한 역사와 문화자원을 갖춘 세계유산도시로서의 인프라를 구축, 지속가능한 발전기반을 착실히 다져 왔으며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농약 등의 풍부한 자원을 갖춘 세계유산 도시로 종물소리테마파크를 완공하는 한편 재난재해 등 국비확보도 부지런히 노력해 미래를 내다보는 군민 행복시대를 힘차게 열었다.

열악한 군 재정 확충을 위해 ‘발품행진’을 적극 펼쳐 공모사업 23건, 국·도비 1819억원을 확보해 예산 4755억원 시대를 열었다.

무엇보다 민선 6기 이전 큰 규모의 사업들에 밀려 고통받아온 주민들의 숙원을 해결하는 ‘소규모 마을별 주민 숙원사업’ 해결은 군민의 행복한 생활환경 마련에 가장 큰 노력을 기울이는 박 군수의 결단이 빛났던 사업이다.

세민금개발사업이 마무리되고 있는 만큼 국도 77호선이 조기 건설될 수 있도록 힘쓰면서 국도 23호선이 2017년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해 고창군으로의 관광객 유입을 유도하고 인접 대도시인 광주광역시와 전남지역 관광객이 보다 쉽게 고창군을 찾을 수 있도록 백암C~고창석정운천을 연결하는 국지도 15호선, 장성군~고창석정운천을 잇는 국지도 49호선이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해 친환경관광도시 메카로 도약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고창갯벌을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며 차질 없이 준비 중이며, 총 사업비 200억원이 투입되는 고창읍성 대표관광지 육성사업과 고창읍성 일원 생태계를 보존하면서 생태휴식공간으로 조성하는 ‘고창 자연야당 조성사업’도 사업이 55억원을 확보하고 쾌적하고 유익한 생태휴식공간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동안 넓게 보고, 멀리 보는 박 군수의 발전 전략에 따라 진정으로 고창군에 필요한 사업과 주민들이 원하는 일들에 집중해 왔으며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의 보호와 현명한 이용을 위해 보전·발전·지원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고창 생물권보전지역관리센터를 건립 중이다.

아울러 고창갯벌 생태지구 조성, 운곡습지 생태관광벨트 조성에 힘쓰면서 세계유산 고창 고인돌유적과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인 판소리과

취임 초기부터 주민들의 오랜 숙원을 해결하고 지역이 골고루 균형발전할 수 있도록 해 마을안길 노후도로 정비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위험도로 선형개량사업 등 실질적으로 생활의 불편함을 덜 수 있도록 190여억원을 투입, 1850여건을 해결했다.

세계최고의 자연생태환경을 갖춘 고창군에 더욱 많은 사람들이 머무르고 살기위해 찾아오는 곳이 되도록 지역 미래발전 인프라 조성에 총력을 가한다는 방침이다.

민선 6기 고창군은 장기적인 계획에 따라 군이 보유한 풍부한 자원들을 연계, 결합해 가족단위 체험관광도시의 요충지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역점적인 노력을 기울여가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임실군 민선6기 전반기 성과 분석·확인

심민군수 업무보고회 주제

임실군은 24일부터 오는 7월 1일까지 6일간에 걸쳐 군청 건부회의실에서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회’를 개최하고 있다.

심민 군수 주제로 실과원소장과 팀장급 실무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이번 보고회는 민선 6기 2주년을 맞아 상반기 성과를 분석하고 하반기 새로운 변화 완성을 위한 역동적 군정수행을 확인·점검하기 위

해 마련됐다.

첫째 날인 24일 농업농촌분야 소관 부서인 농업농촌과, 축산산림과에 대한 업무보고는 지속가능한 농업생산에 지원해 농가실질소득을 향상시키고 고령·영세농 중심의 지역여건에 맞는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발전 방안 등에 집중 토론했다.

오는 7월 1일까지 문화환경분야, 안전건설분야, 보건복지분야, 일반행정분야 등 세부 분야로 나눠 업무보

고를 실시해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특히, 심민 군수는 사전에 업무보고 자료를 검토하고 현지 확인이 필요한 임실현 지방하천정비, 임실 제2농공단지 조성, 젓소 육성우 목장 조성 등에 대해 현장 방문을 실시했으며, 이번 업무보고를 마친 후에는 주민들의 생생한 의견을 듣고 민생현장을 직접 발로 뛰는 현장소통행정을 실시할 계획이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청국장, 한국형 장건강 프로젝트 선정

프로바이오틱스로 등재·건강기능식품 개발·육성

순창군이 순창청국장을 활용해 전 국민의 장 건강 지키기에 나섰다.

군은 순창청국장을 주제로 신청한 ‘한국형 장건강 프로젝트’가 2016년도 미래창조과학부 전문문화 프리미엄 창출 선도 프로젝트에 선정돼 국비 50억을 확보했다고 27일 밝혔다. 총사업비는 60억여원이다.

한국형 장 건강 프로젝트 사업은 전통청국장 미생물이 고초균 등 균주를 국내의 프로바이오틱스(식약처 건강기능식품 기능성원료)로 등재하고 이를 활용해 다양한 장 건강기능식품을 개발·육성 하는 사업이다.

전라북도과 창조경제혁신센터(센터장 김진수)와 연계 추진하며 태초먹거리로 유명한 충남대학교 이계호 교수를 비롯해 전북대학교, 순창건강장수연구소 등 다양한 학·연 기관들이 참여해 사업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이번 사업 선정으로 주관기관인 (재)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이사장 황숙주)은 신생아의 면역증진에 활용되

었던 순창전통청국장 미생물 고초균 등을 식약처에서 인정하는 프로바이오틱스 균주로 등재하고 단순 청국장 제품이 아닌 비만, 장기능개선, 면역개선 등에 특화된 건강기능식품 제품을 개발할 계획이다.

또 발아현미 및 청국장을 활용해 기존 동물성 유산균 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식물성 유산균을 제품을 개발해 국내는 물론 세계시장 진출도 내다보는 방안이다.

실제 2011년 405억원에 머물던 국내 유산균 시장은 2014년에는 1500억원으로 급성장했다. 또 2011년 35조원이던 세계시장은 2014년 57조원으로 성장했다.

순창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은 이번 사업이 현재 수입에 의존중인 동물성 유산균 균주를 식물성 유산균으로 대체하고 시장을 확대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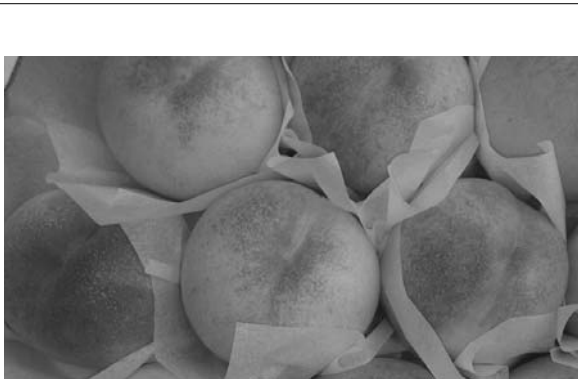
현재 청국장에 대한 대표 브랜드가 없는 상황에서 순창청국장이 창조모



순창군이 순창청국장을 활용해 전 국민의 장 건강 지키기에 나섰다.

델로 선정돼 향후 ‘순창청국장’에 대한 브랜드 가치도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순창=이영원 기자



복숭아 신제품 그린황도 ‘인기’

당도 높고 향 좋은 조생종으로 전국서 가장 빨리 수확

전국 최고의 품질을 인정받고 있는 춘향골 복숭아가 전국의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기 위해 최근 첫 수확을 시작으로 바쁜 손길을 보이고 있다.

이번에 출하되는 복숭아 품종은 그린황도 품종으로 노지에서 다른 지역보다 조기에 생산하여 대도시 소비자로부터 인기가 높다.

남원시농업기술센터(소장 이찬수)에 의하면 FTA에 대비하여 복숭아 신제품 재배로 당도가 높고 향이 좋은 조생종 품종인 그린황도를 재배하여 품질을 인정받고 있는 가운데 전국에서 가장 빨리 수확하여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여 소득을 올리고 있어 복숭아 재배 농가들의 돈이 되는 품종으로 정착되고 있다.

그린황도 품종은 황도계통 품종으로 6월 하순에 수확하는 품종이며 고유에 향이 있어 매년 소비자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남원지역은 복숭아 재배에 기후와 토질에서 안성맞춤이고 재배 농가들의 뛰어난 기술력으로 생산되며 복숭아는 270ha가 재배되고 있으며, 맛과 향은 물론 빛깔이 좋아 대도시 소비자들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복숭아 명품화를 위하여 조생종 품종 확대재배, 시설하우스 복숭아 에너지 절감기술 보급, 새로운 수형재배인 팔메트수형, 2분주지 수형재배기술 보급하고 있으며 외래해충인 갈색날개매미충을 적기에 방제하여 품질향상에 주력하고 있다.

남원=유영철 기자

임실군, 한우 배내기 사업 추진

70세이상 노인에 분양

임실군이 고령화된 농촌지역에 생산적인 일감지원으로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한 ‘한우 배내기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군수 공약사업인 ‘한우 배내기 사업’은 한우를 사육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갖춘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6개월령 한우 암송아지를 분양하고, 입식 후 2개월 전후 6개월령 암송아지 금액으로 현금을 상환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군은 1억 5천만원의 군비를 확보하고 임실축산업협동조합에 배넛소 구입과 입식 등에 관한 업무를 대행 추진한다.

지원 자격은 신청당시 한우를 사육하지 않은 만 70세 이상 농가로서, 사업예정지가 ‘가족농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 관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또한, 대상자로 선정되면 입식 받은 배넛소에 대해 성실한 사육의 의무와 책임을 지며, 타인에게 사육 관리권을 양도하거나 매각할 수 없고, 관리상 변동사항 발생 시에는 즉시 신고 하는 등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아울러, 한우 배내기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가는 마을의 추천을 받아 관할 읍·면사무소를 통해 7월 1일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사업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읍·면사무소 및 군청 축산산림과에 문의하면 된다.

임실=진홍영 기자



고창군청 오거리 회전교차로 설치 완료

고창군청 오거리에 신호등 대신 회전교차로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고창군(군수 박우정)에서는 회전교차로 설치를 위해 작년 하반기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올해 3월 공사 착공해 6월 초에 완료했다.

27일 군에 따르면 그동안 군청 오거리의 출·퇴근 시간대 신호대기 시간이 길어 교통정체가 심하고, 과속·신호위반 등으로 교통사고 위험이 높았던 지역이었으나 회전교차로 설치로 교통신호에 따른 대기시간이 없어져 교통흐름을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려면 속도를 줄일 수밖에 없어 과속 또는 정면충돌 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적어지는

등 많은 효과를 내고 있다.

회전교차로 이용은 회전차량이 우선이며, 진입차량은 정지하고 양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진입 때 접촉 사고가 발생하면 진입한 차에 과실이 있다.

군은 운전자들이 회전교차로 이용방법을 이해하고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계속할 계획이다.

한편, 군에서 통행량이 가장 많은 지역 중 하나인 군청 앞 오거리 회전교차로 중앙교통섬에는 군을 대표할 수 있는 시설물(나무식재 또는 조형물 등) 설치할 계획이며 시설물은 군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결정할 계획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순창군 민원처리 마일리지 호응

순창군이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가 군민들의 민원만족도를 높이는 데 큰 몫을 하고 있다.

군은 올 상반기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를 운영한 결과 3월이상 유기한 민원 5,140건을 처리하는데 소요한 기간이 법정처리일수보다 74.6%나 단축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상반기 4,766건을 66.8% 단축 처리한 것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이다.

민원처리마일리지제는 법정처리기한 3일 이상 유기한 민원을 대상으로 법정처리기간에서 단축한 일수만큼 마일리지 점수를 계산하고, 개인별 누계 마일리지 가 높은 우수 민원 담당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군민중심의 고객만족 서비스이다.

순창=이영원 기자



남원시, 예가람길 체험 놀이터 열려

남원시 예가람길에서는 최근 40여명의 산동초등학교학생과 원어린이 함께하는 ‘예가람길 문화체험 놀이터’가 열렸다.

남원시예가람길운영위원회와 남원시 진로직업체험센터, 산동초등학교가 함께 만든 이 프로그램은 예가람길내 위치한 문화예술관련 상가 및 기관(예가람길 미술관 등 6개소)에서 원어린 강사와 함께 학생들이 영어로 대화하며 다양한 종류의 체험활동을 진행 하는 프로그램으로 교육적인 측면과 진로 발굴, 문화예술 체험 등 다방면의 효과를 목적으로 마련했다.

평소 접할 기회가 적은 악기체험(드럼 연주 프로그램)이 가장 큰 호응을 받았으며 다도체험, 공예체험, 여름철 먹거리 만들기 체험 등 모든 프로그램에 대하여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았다.

한편 「예가람길 문화체험 놀이터」는 2013년 남원시예가람길운영위원회·남원시교육지원청과 공동 주관으로 원어린강사와 함께하는 문화체험패키지 ‘예가람길 미션을 수행하라’로 시작되었다.

3년차인 올해에는 산동초등학교 1학년~6학년까지 함께하면서 ‘예가람길 문화체험 놀이터’의 주제로 진행되었다.

또한 7월부터 11월까지 남원시 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총 3회가 추가로 진행될 예정이다.

남원=유영철 기자



임실군보건의료원, 안과 진료 개시

임실군 보건의료원이 안과를 개설하고 27일부터 진료를 시작해 군민들의 오랜 숙원이 해결될 전망이다.

군은 그동안 인구 고령화로 노인 대부분이 안과 질환을 앓고 있어도 관내 안과 의료기관이 전무해 효율적인 치료를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타 지역까지 이동해 진료를 받아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이를 위해 군은 3억여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안과진료를 위한 각종 의료장비를 갖추고 우수한 의료진을 확보하여 안과질환 진료, 안경처방, 백내장 수술 등 폭 넓고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군 보건의료원 관계자는 “안과개설로 안과질환자들이 효율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군민들에게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진료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 보건의료원은 이번에 개설된 안과를 비롯해 내과, 재활의학과, 소아청소년과, 비뇨기과, 한의과, 치과, 이비인후과 등 8개 진료과를 운영하고 있다.

임실=진홍영 기자